

4명 모두 현역…‘의원 입각’ 카드로 ‘인사 난항’ 정면돌파

文대통령 ‘양해’ 입장 표명 하루만에 장관인사 단행

국정운영 조기 정상화 의지

고공행진 지지도 작용

여성·지역·전문성 등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의원 입각’ 카드로 인사청문회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3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는 취임 20일 만에 이뤄진 두 번째 내각 인선으로, 후보자는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이번 인선 발표는 정권 초기 국정운영의 틀을 이룬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돌파 카드’로 풀이된다. 이미 인선 자체가 상당 시간 미뤄진 상황에서 더는 국정 공백을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 입장을 표명한 이후 하루 만에 인사를 단행한 데서도 문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새 정부 초기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야당에 주도권을 내준 채 끌려가다가는 문 대통령이 공연한 개혁 드라이브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공행진을 보이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문 대통령이 인선을 단행한 배경의 하나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22~26일 전국 유권자 2523명을 상대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0%포인트)를 실시해 전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4.1%를 기록했다.

또 이날 단행한 장관 후보자들을 현역 의원으로 한정한 것은 국회의 인사검증 통과 가능성은 모두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더욱이 김부겸 후보자는 4 선, 김현미·김영춘 후보자는 3선으로 중진급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점이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선거를 통해 일자적으로 국민의 견증을 받은 데다 직전까지 동료 의원으로 국회에서 얼굴을 맞댄 저지라 비의원 후보보다 인사청문회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당 소속 의원들을 대거 기용한 데에는 그가 대선후보 때부터 지녀온 신념이 녹아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라고 언급해왔다.

이와 함께 이날 조각은 지역적 균형도 고려됐다는 평이다. 김부겸 의원은 경북 상주, 김영춘 의원은 부산, 김현미 의원은 전북 정읍, 도종환 의원은 충북 청주 출신이다. 영·호남은 물론 충청까지 어우른 섬이다. 특히 김부겸 의원과 김영춘 의원은 지역구가 각각 대구 수성갑, 부산 진구갑으로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의 텃밭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인선 중 김현미 의원의 경우 여성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의 ‘파격 인선’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역대 첫 번째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였을 당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내각 여성 30% 임명’ 공약을 세웠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3당 간사들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광수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바른정당 김용태 간사.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수석비서관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 여성은 발탁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문성 또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의원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김영춘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다. 김현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도종환 의원은 유명한 시인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몸담았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39명 중 광주·전남·전북 10명 충청권 7명·PK 5명·TK 3명

서울·호남 출신 과반…새정부 탕평인사 합격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내각 인선이 속속 발표되면서 새 정부의 지역 탕평 인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이 영남 출신이라 국무총리는 비영남 출신으로 고려한다고 했을 정도로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만큼 이런 기초가 얼마나 실행됐는지가 관심사다.

30일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청와대 비서실 인사와 내각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총 39명이다.

이 인사들을 출신 지역별로만 본다면 서울(경기 포함)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잇는 지역이 10명인 호남이다. 광주·전남 출신이 7명, 전북 출신이 3명이다. 서울과 호남 두 지역 출신 인사를 합하면 총 22명으로 여태까지 발표된 인사의 절반을 넘는다.

충청 출신 인사도 7명으로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과 호남, 충청 다음으로는 부산·경남(5명), 대구·경북(3명), 강원·제주(각 1명) 순이다. 지금까지의 인사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대로 호남 지역을 배려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호남,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역으로 배려하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다. 청와대가 30일에 발표한 장관 후보자 4명의 출신 지역이 영·호남과 충청으로 나뉘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인사가 발표되기 전까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고향인 대구·경북 출신 인사는 2명으로 강원·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인원이 적었다. 부산·경남은 김영춘 의원이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5명을 제외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현미 의원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각별히 전북 지역을 배려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탕평 인사 의지를 강조하면서 “호남도 광주·전남과 전북을 따로 배려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지명 전까지 발표된 호남 출신 인사 9명 중 전북 출신은 운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김 이수 현법재판소장 후보자뿐이었다.

/이충행기자 golee@·연합뉴스

신임 장관 후보자 프로필

‘지역구도 극복’ 아이콘…대구 출신 4선 의원

김부겸 행자

대구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지역구도 극복’의 상징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재야 운동권 출신으로, 온건 진보파로 분류된다.

1977년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되고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또다시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1997년 통수가 해체될 때 한나라당에 합류한 뒤 2000년 군포에서 배지를 달았

다. 2003년 7월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 우리당 정당에 참여했고 이후 17대, 18대 의원에 내리 당선됐다. 19대 총선에서 ‘삼세판’ 끝에 대구 민심을 얻으며 4선 의원이 됐다. 소선거구로 지른 총선 기준으로 대구에서 정통 야당의원이 당선된 것은 1971년 이후 45년 만이었다.

▲경북 상주(59) ▲서울대 정치학과 ▲16·17·18·20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동중앙선대위원장

참여정부서 첫 여성 정무비서관 지낸 ‘경제통’

김현미 국토

1987년 평민련 당보 기자로 정치권에 첫발을 디딘 뒤 17대와 19대에 이어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여성이 정무비서관을 지낸 것은 처음이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아 ‘입’으로 활약했다. 특히 정무와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며 각각 간사까지 역임하는 등 ‘경제통’ 의원으로서 경력을 쌓아갔다.

19대 총선에서 청와대 성공하며 국회에 재입성했다. 19대 국회에서도 4년 내내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읍(55) ▲전주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참여정부 정무2비서관 ▲국회 예결위원장

‘접시꽃 당신’ 쓴 시인…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도종환 문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30일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접시꽃 당신’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시인 출신의 재선의원이다.

진보·개혁 성향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페어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도 후보자는 1977년부터 청주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하다 1989년 해직됐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청주 흥덕구에 출마해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도 후보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를 기념해 현시 ‘운명’을 쓰고, 광화문 추모문화제와 봉하마을 추도식에서 이를 낭독했다.

▲경북 청주(63) ▲충남대 국문학 박사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문화예술정책 상임위원장

개혁 성향 86 그룹…국회 농해수위원장 지내

김영춘 해수

2002년 대선을 앞두고는 미래연대 소속의원들과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풍 운동을 벌였다.

2003년 김부겸 의원 등과 한나라당을 탈당하며 ‘독수리 5형제’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후 열린우리당 정당을 주도했지만 비노(非盧) 인사로 분류된다.

▲부산(55) ▲고려대 총학생회장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16·17·20대 의원 ▲국회 농해수위원장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반송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품목	규격	2016.12.31 까지 줄고 또는 수령되는 제품에 적용	2017.1.1.부터 줄고 또는 수령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제작용병 시행방법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조	190㎖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미니어처 등
	190㎖ 이상 400㎖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스(helper), 청량음료 등)
	400㎖ 이상 1,000㎖ 미만	50원/개	130원/개	액주(焼酎等) 등
	1,000㎖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장중 등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물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